

김미련
KIM MIRYEON

2006-2023

www.kimiry.net
www.localpost053.com

개인(1999-2008) > 공동체 > 관계 속 존재의 재구성(2009-2023)



공간 속의 존재적 좌표 찾기 >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재적 좌표

Remapping

유럽과 미국의 세계지도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세계지도에서의 동구와 서구의 구별은 미국의 세계지도에서는 반대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주 다른 세계지도(인도네시아가 세계지도의 중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도는 그 나라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낯설음은 나에게 묘한 충격을 주었고, 나는 나의 습관적인 시 지각습관들과 객관적인 이미지-정보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보게 되었다.

평면(2차원)의 세계지도를 입체(3차원)로 옮기는 작업과정(제 각각 다른 지구의 대륙이 부분적으로 세겨진 3개의 지구형(공)들은 회전모터에 의해 돌아간다.)에서 지구가 어떤 한 곳(장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각 대륙에 연결된 고정장면들 없이 끝없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 오브제는 설치공간의 크기, 볼륨, 빛의 출처와 각도,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에 따라 전시장소와 유연하게 조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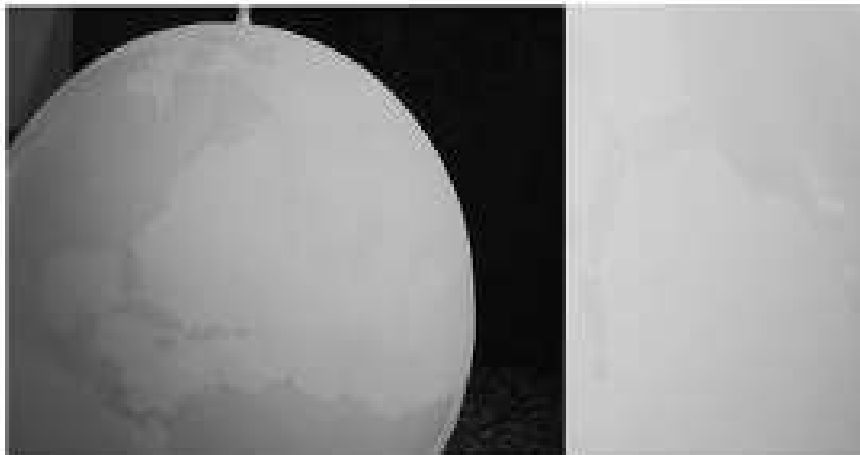


한 장의 지도는 어떠한 것의 모사 일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고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Remapping I / Plaster / 92x47x5cm / 2005



Remapping III
Space Installtion
구 지름101cm
2006





Remapping VI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360x160cm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RmRQdGzQ7h0>





Remapping Daegu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variable size,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a1y-u8nYKpl>



강현지(시카고)+김미련(대구)+정효진(뒤셀도르프), 강현지작가의 제안한 프로젝트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지구 고급화(Gentrification)에 대해 공동체 멤버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는 공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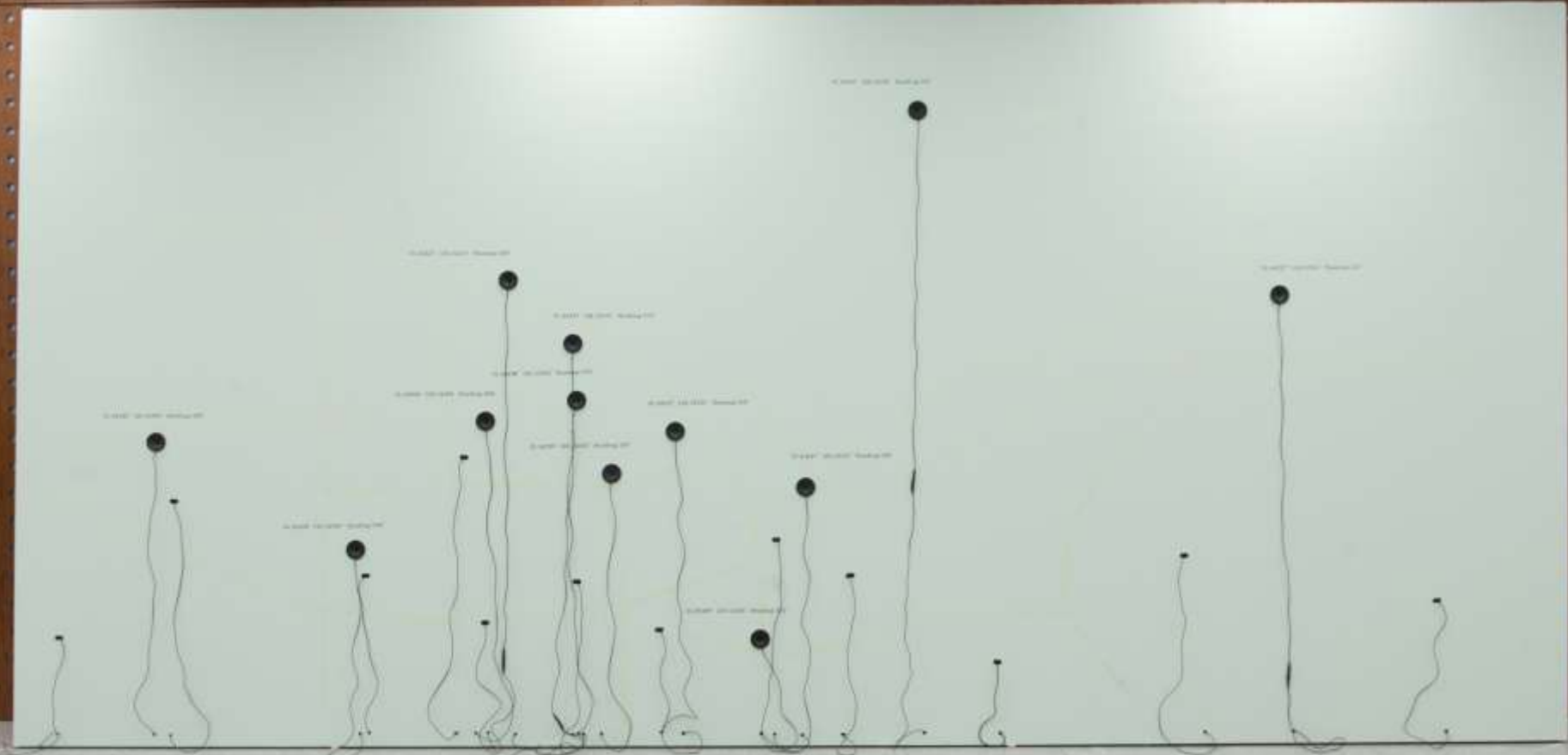
Under the Costruction / interactive sound-Visualization + 다채널 비디오 / 2013



평면의 캔버스위에 보링거플라츠에서 관찰되어지는 여행자들의 움직임이 투사된다.
 그와 동시에 큐브모양을 띤 글라스하우스의 각각의 면들은 평면 위에 별 모양으로 펼쳐지고 그 중심은 하늘이다.
 캔버스 위에 투사되는 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각 면의 대치 점이 부각된다.
 이 장소와 연관된 사람들은 아주 강한 이 주민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영향은 위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시화된다.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과 더불어 세계각지의 뉴스영상이 동시에 투사된다.
 이 싱글채널 비디오 (**Videoloop**)에서 시간(낮/밤)과 사람들(**Worringer Platz**)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터넷설한 뉴스속의
 사람들)이 교체되어 드러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와 행위자의 비가시적인 면과 가시적인 면의 동시성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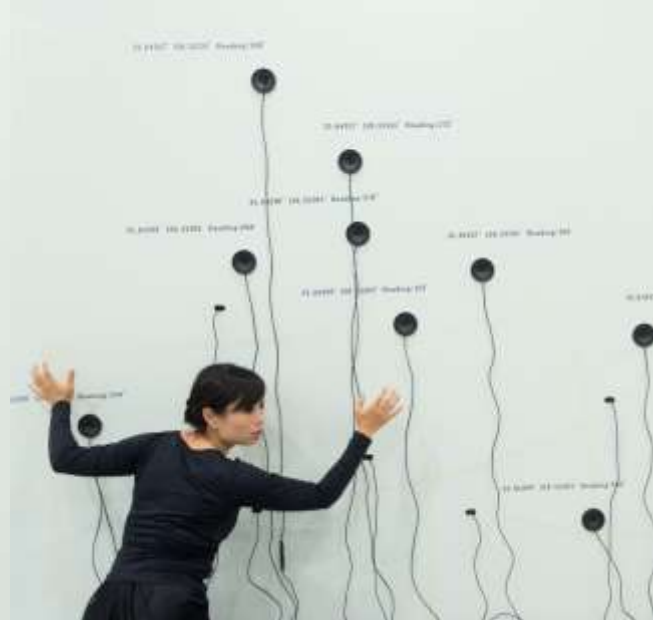


포항 영일만의 15세기 고지도에서 보여지는 공간해석에 대한 지도 그리기 방식과 지금의 변화된 포항의 지형, 삶의 유형, 포항 시민의 정서, 지도 그리기 방식의 변화에 대한 것을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나타내어, 관객의 흥미가 가는 장소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Noise mapping in Daegu

sound interactive Installation, 650x30x10cm, 2014



Noise mapping in Daegu sound interactive Performance, Park JungHee, 2014



포항 영일만 고지도를 현재적으로 재해석,
제철산업으로 근대를 일구어낸 질료라고
할수 있는 철 가공 잔여물인 기루꾸,
선반 칩을 이용해 설치

도기야의 아틀라스

쇠밥, 선반 칩, 라이팅 자동 점등소등
320 x 160x 2.6cm
2015



Monumental Air Coat in Glass box IV / interactive Installation / 2010



커다란 기념비적 진열장(monumental Showcase)을 떠올리게 하는 유리상자 안에 설치되는 8개의 남성용 코트(얼룩무늬와 국방색, 군청색으로 된 XXL사이즈)는 그 무늬와 색상, 옷감의 광택으로 인해 지나간 기억 속에 있는 집단적인 권위, 또는 억압, 폭력 등으로 치환(置換)될 수 있다. 과거의 기억 속 어떠한 것들이 호출되듯이 관람자의 미세한 반응, 동작등에 의해 정지된 오브제들은 팽팽하게 부풀었다가 다시 쪼그라든다.

오브제와 관람자의 행위가 상호작용(interaction)하여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들은 과거 속 기념비적 진열장을 현재에 있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시간 이동시킨다.

Monumental Air Coat in Glass box IV / detail



<https://www.youtube.com/watch?v=hQG51CO3pk>

The spatial Plants

■ Daegu Media Art ZKM 2013 -Better Than Universe / 예술감독 유준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독일에서 영상설치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과정을 이수한 김미련의 작업은 3D 맵핑으로 알려져 있는 영상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의 작업은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영상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매우 확장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

김미련은 〈Spatial Plants〉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현재 시간과 매개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간에서 발견한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영상언어로 구체화함으로써 과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공간에서 다시 환기하고 재정의 하는 것이다.

〈Spatial Plants〉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채취한 식물을 시간의 순으로 배열하고 기록화 한 사진 시리즈로 사진제작 방법상 ‘Scanner Photography’라고 분류된다. 스캐닝을 거친 일련의 다양한 식물체는 그것들이 사진결과물로 출력되기까지 가상의 이미지로 변환된다.

반면, 스캔 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금 3D 영상작업으로 재해석한 〈Spatial Plants II〉는 가상과 실재의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화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식물 이미지는 가상의 영역을 부유하듯 떠돌고 있다. 이때 관객은 스크린 화면에 떠도는 가상의 식물이미지를 지각하면서 동시에 전시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실제 화분들을 지각함으로써 현실의 범주를 넘나들게 된다. 게다가 〈Spatial Plants II〉 영상설치에서는 실제 화분들이 드리우는 그림자가 영상에 투사되어 가상적 이미지와 조우하게 되면서 우리의 지각 안에서 또 다른 현실의 층위가 생성된다.

이 모든 가상과 실재의 혼재는 중국에는 ‘현실’ 그 자체를 가상적 경험의 일부로 지각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몰고가게 될지도 모른다.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서 작업을 펼쳐나가는 김미련의 작업은 실재의 것들이 가상화하면서 파생시키는 ‘그 무엇’에 대한 포착을 추구하고 있다.



Gachangs Spring Scanografie, Digital Print, 29.7x21cmx90 pieces, 2009



Pumpkin Flower Scanografie-Digital Print, 150cmx105cmx3 pieces, 2010



Pumpkin Flower 4,6,7 Scanografie-Digital Print, 150cmx105cmx3 pieces, 2010



The spatial Plants II Video installation, 5m21s, 2012
<https://www.youtube.com/watch?v=xNN-J9vBzD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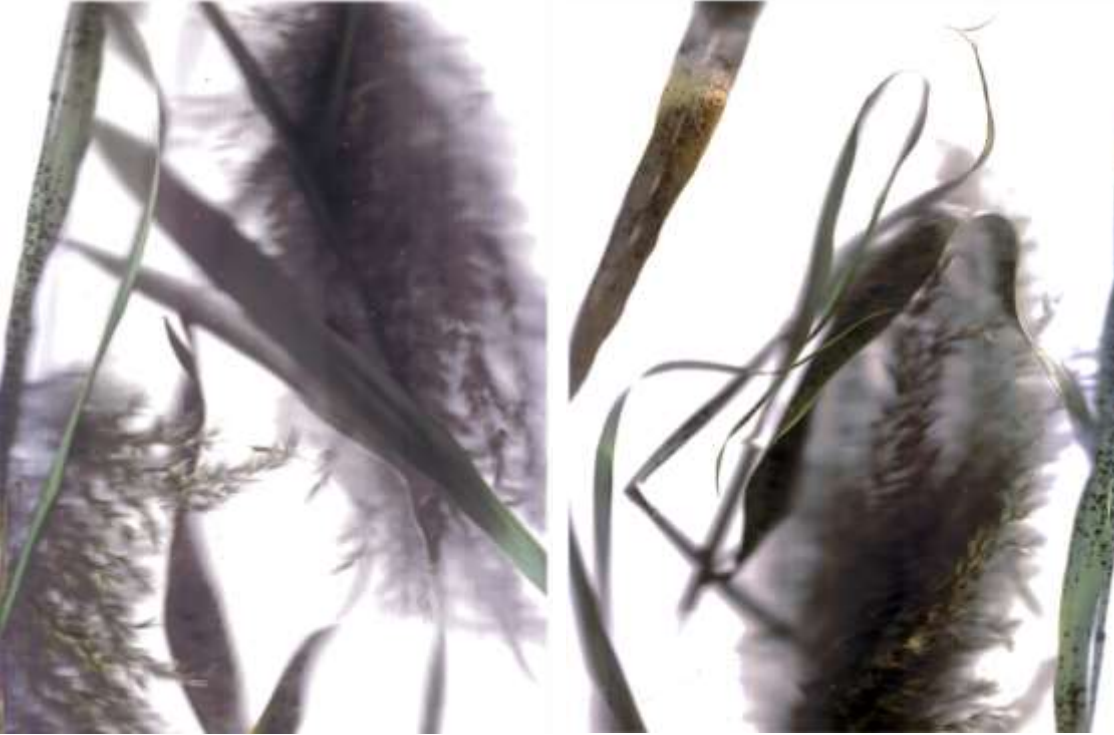


The spatial Plants II Detail



'문래 스캐닝' 설치장면 2D scangraphy, 270x270cm, 2014

Pohang, Yeongilman2D scangraphy



Reed in Yeonilman I, 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Bamboo in Homiro I,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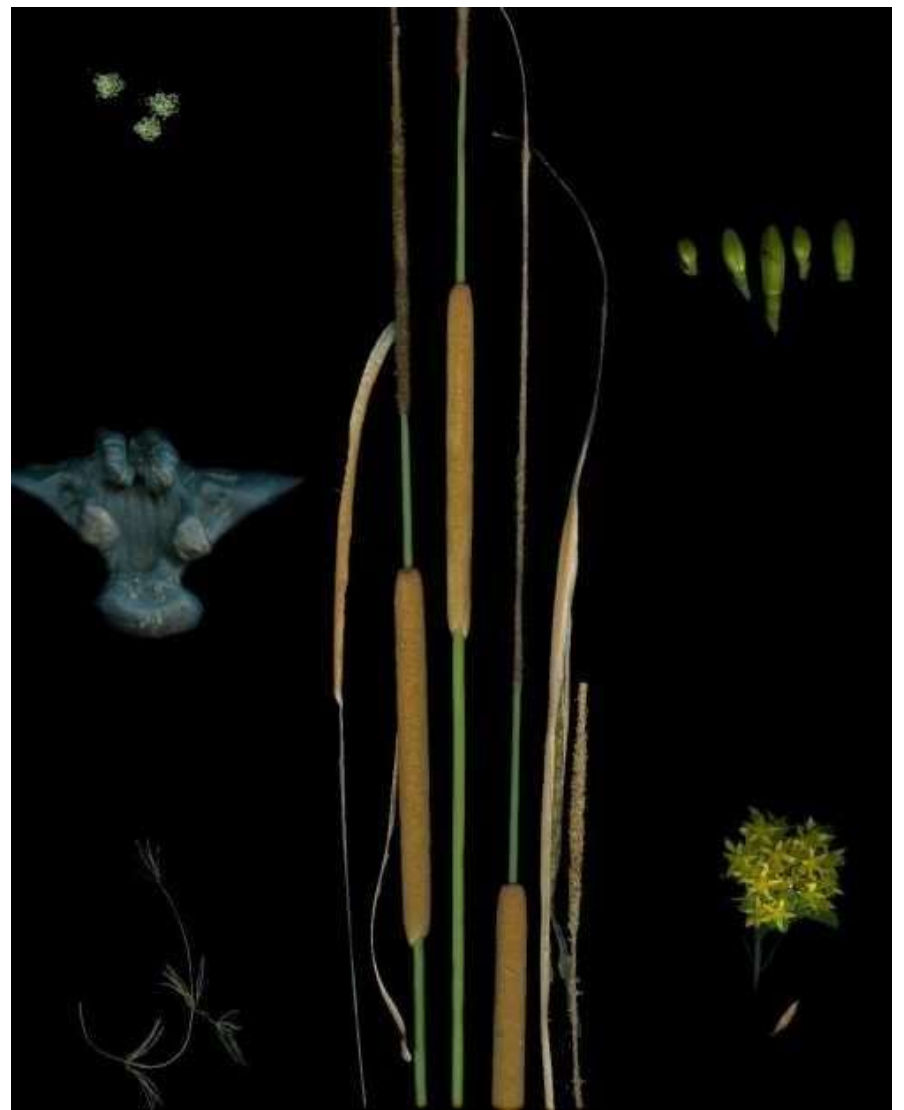




Autumn in Dogiya I,II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Autumn in Dogiya III, IV
2D scangraphy
90 x 120cm x 2
2015



소별야화_ Memory error 60x40cmx2, Scannography, Pigment print, 2016



소별야화_ Memory error 60x40cmx2, Scannography, Pigment print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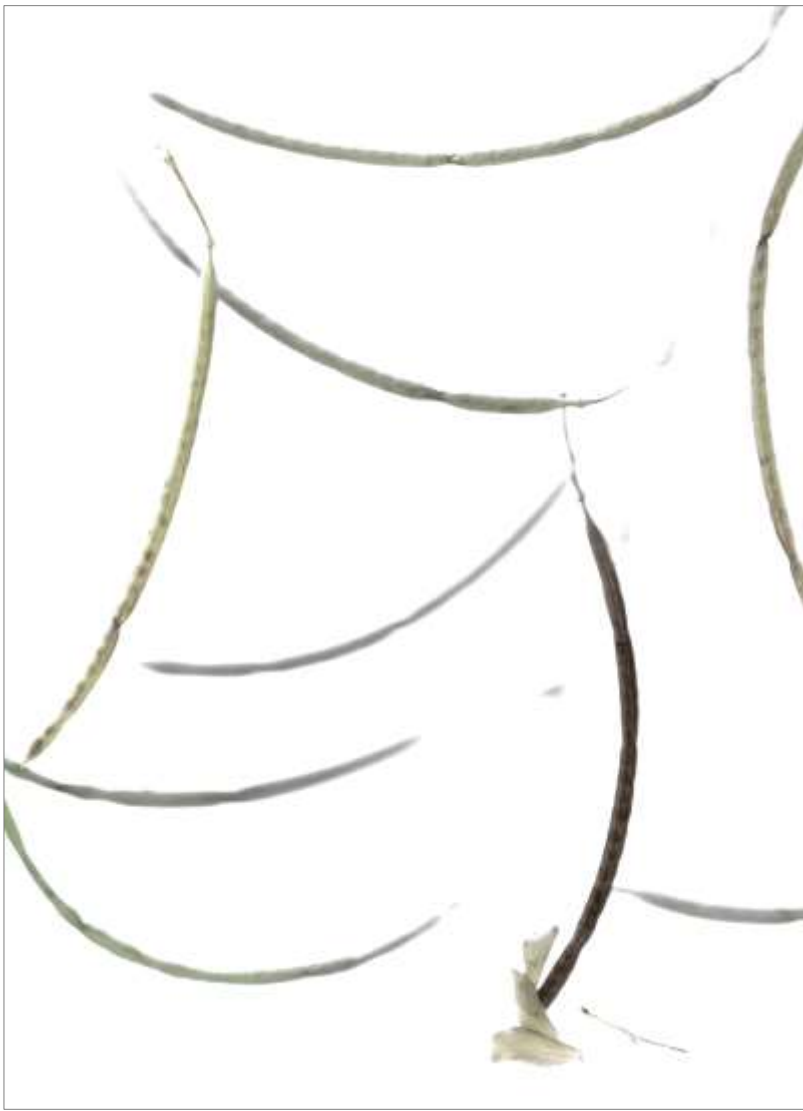


The spatial Plants in DMZ I, III 130.3x97cm, 한지 위에 피그먼트 인화, 2021



풍경의 좌표 II, III

101x145cm, 스캐노그래피, 컬러프린트, 2021



풍경의 좌표 VI, I

101x145cm, 스캐노그래피, 컬러프린트, 2021

Before - After

십 수년간 여러 작가들의 작업장으로 쓰이는 동안, 전시와 작업이라는 용도의 반복과 변화에 의해 붙박이장 문은 수없이 닫히고 열리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작가들마다의 작품과 작업에 투영된 수 없는 반복과 변화, 그 동일성과 이질성을 개인작업으로 끌어들인다. 공간에서 일어난 우연한 과거의 사건 위에 작가의 현재적 노동을 가미하여-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우발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 시간과 공간, 겹침과 단절-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을 불러내어 하나의 공간 속에 투영된 역사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미술작품의 사회적 역할이 단순히 작가의 노동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 방향적인 생산품(Production)에 국한것이 아닌, 주어진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작품 속에 최대한 시간, 공간, 이미지의 결합을 유도하여, 관객이 그것을 체험하고 관객 나름의 상상으로 더 확장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체와 객체의 경계, 작품과 비 작품의 경계, 개인과 전체, 본질과 대상 등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이 실은 하나의 면 위에서 순환,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Before-after / Space Installation / 300x400cm / 2006



before-after-process



Wall closet II

Videoprojection on Wall

300x400cm

2008

[김미련 video documentation 2003-2008 - YouTube](#)



Wall closet

2channel video on 2PDP

143x92x7cm

2008

[김미련 video documentation 2003-2008 - YouTube](#)



Atelier Digital Print , 90x63cmx6, 2008



After Pandemic
AR video, VR Gear, Tablet Pad
Variable Size
2020

hiddenproject.de/fileadmin/user_upload/Orte/Korea/After_Pandemic-pandemic_spring06_kimiry.mp4?fbclid=IwAR32v6GHmVKFnz-K4pPonBVSAH_sX6rbnG_LLqmso_uCBWIS-Q3iSymODDj4



문래동 장소특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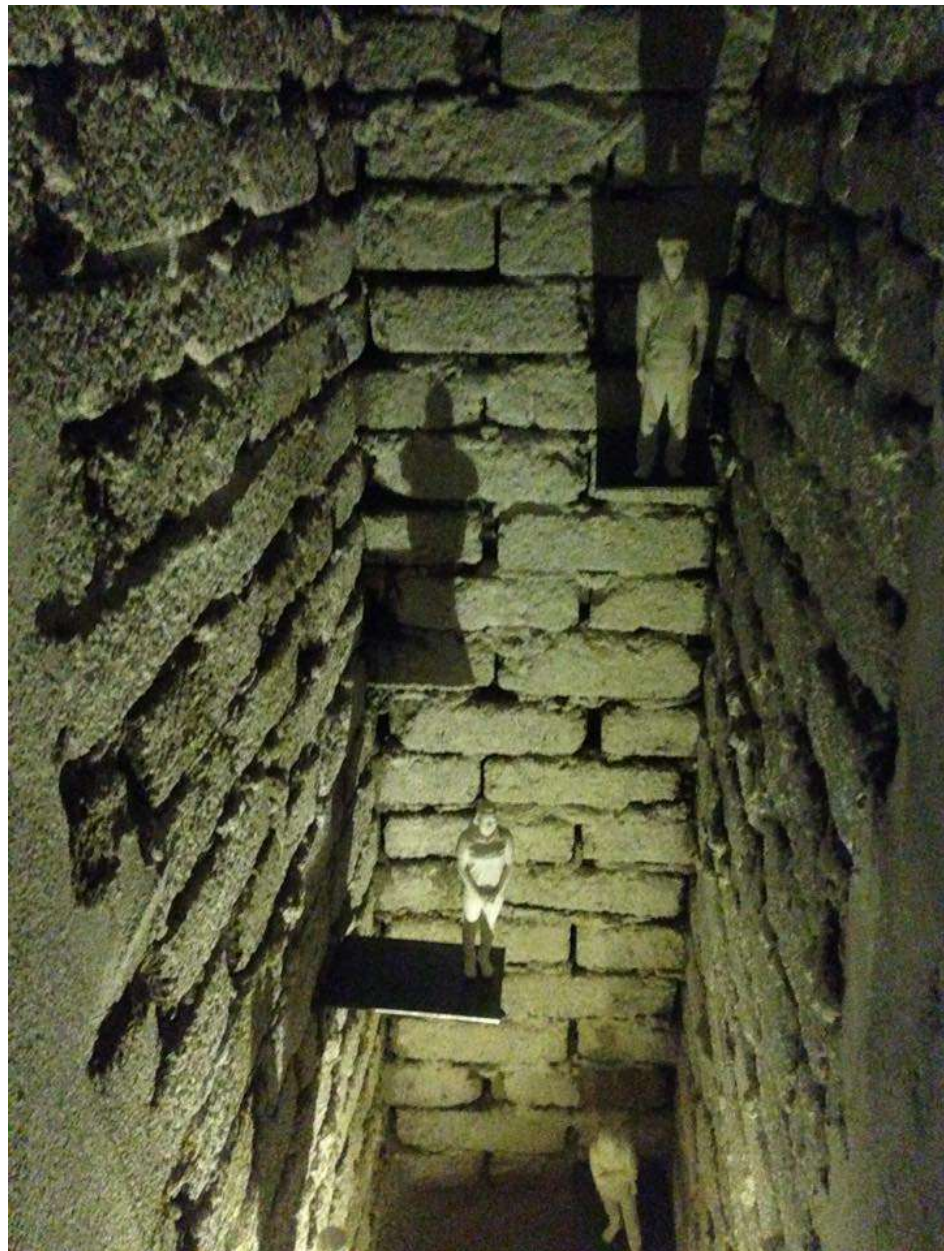
전 천안시립미술관 관장, 미술학박사 성원선

2014년 문래동에서 열린 전시《기억의 미래》에서 2D스캐닝 방식을 통해 문래동 공장지대의 먼지, 철가루, 고양이들의 털, 낡은 포스터, 녹슨 나사들 같은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들로 중요한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 문래동 전시에서는 백색의 인물조각상이 철판들 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문래동의 역사와 한 공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6명의 사람의 실물을 3D 스캐닝하여 3D 프린팅하여 제작된 작업이다. 여기서 스캐닝기술은 평면에서 입체로 그 대상이 확장되었으며 "변화하는 것의 불변성"을 포착하는 것처럼 느끼게도 하였다. 또한, 채집, 기록의 가시적 방법을 통해서 작가는 가변성(기억, 대상, 사물)속에 변하지 않는 불변성(기억, 순간, 존재)을 포착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하고 변화하는 것을 통해 삶, 시간, 관계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디지털기술을 통한 작품구현의 방식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 작품의 의미와 해석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성의 구현, 재현의 역할, 그리고 소통의 가능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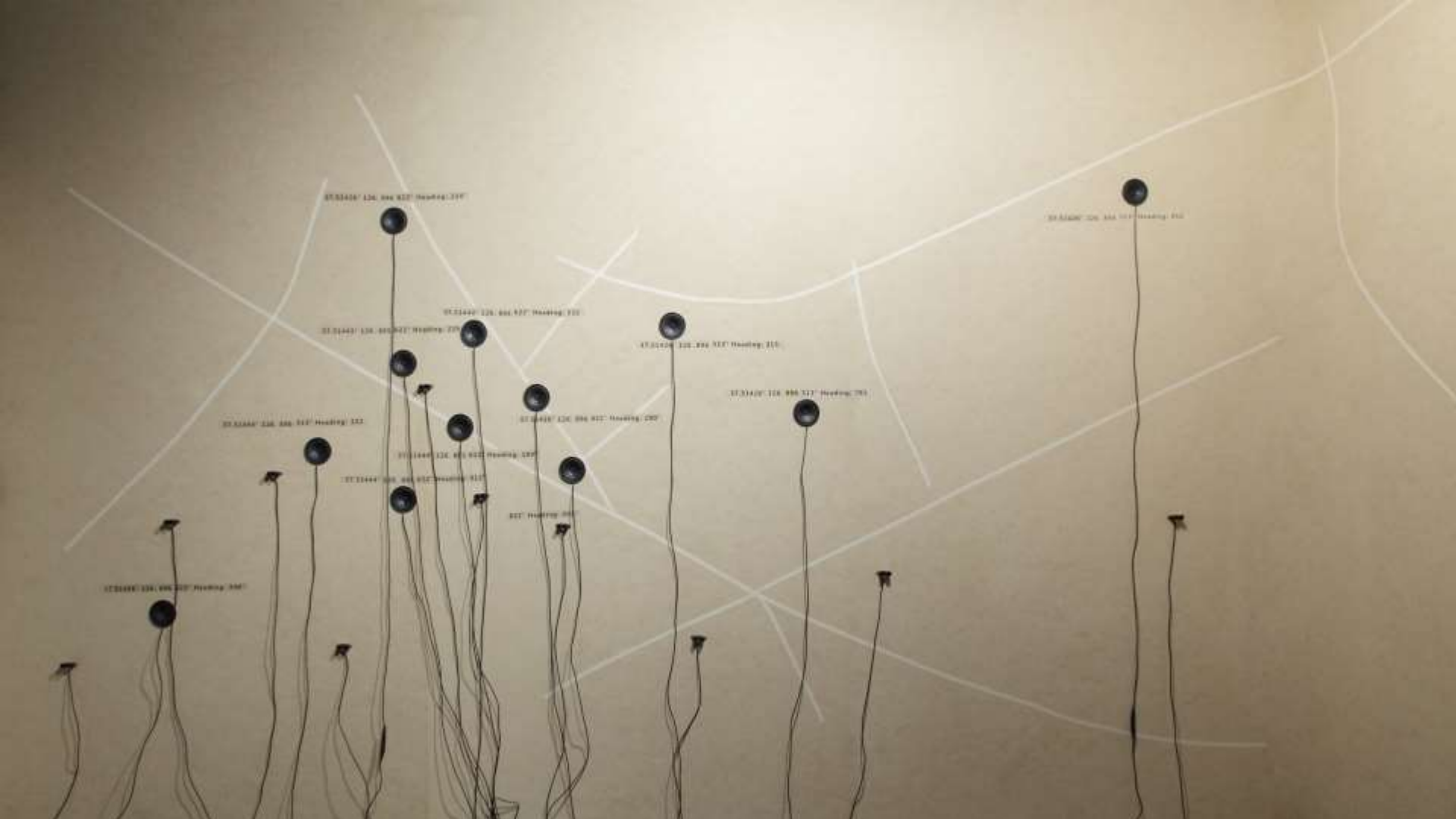


문래동 철공사가 자영업자와 예술가의 구술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3D 프린트 조각
붉은 벽돌집의 모임 3D 프린트 조각, 20x7.5x7cmx6개, 2014





붉은 벽돌집의 모임 3D 프린트 조각, 20x7.5x7cmx6개, 2014



도시의 일상과 장소에서 나오는 소리를 채집하고 인터랙티브한 공간작업으로 구성하여 타율적인
개입에 대한 패러독스를 관람객이 느끼도록 설치하였다. 소음과 소리, 점과 선, 운동과 리듬은
장소에 대한 요소들 속에 새로운 융합을 이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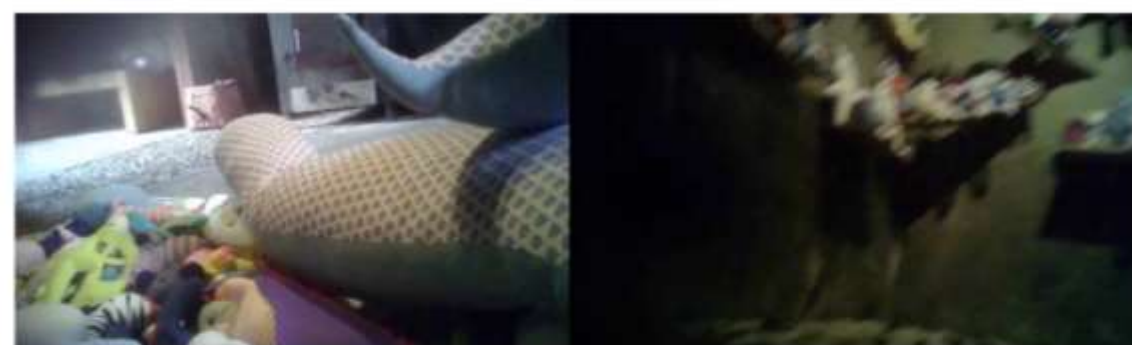
Noise mapping in Mullae sound interactive Installation, 550x240cm, 2014



문래동 철공상가 소음과 관객의 소리에 따라 선풍기 회전영상과 사운드의 왜곡과 리듬이 변화
붉은 벽돌집의 기억재생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 영상, 가변크기, 2014



문래동 철공사가 주물공장 20년의 변화과정을 공유한 상가주민의 인터뷰 기록 영상
붉은 벽돌집의 기억재생 3채널비디오, 인터뷰 영상, 가변크기, 2014



길 고양이 2마리의 헬멧 샷으로 기록된
문래동 철재상가 골목의 낮과 밤
영상과 소리

이포와 광명의 문래슈팅-낮과 밤

2채널 비디오
loop
2014

사루비아의 피부

부산대학교 문화영상과 교수, 조선령

사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e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하였다.

‘스캐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는 하나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의 순간 그 자체를 얇은 막처럼 떼온다. 이 작업에 별명을 붙인다면 아마도 ‘기억의 피부를 본뜨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뜨기 작업은 원본과 사본이라는 두 항들 사이의 일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상들이 스캔이라는 기계적 과정을 거쳐 기록될 때, 감성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사이에는 미묘한 충돌이 생긴다. 이러한 충돌은 경험과 기록 사이의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균열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기록’의 장소는 이 ‘어디에도 없는’ 공간 안이다. 이 공간은 단지 개인의 장소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다른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사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é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

사루비아의 피부II 공간설치, 89x160X4cm, 2016



사루비아다방 벽을 데콜라주 décollage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지층
을 드러내고 뜯어낸 벽의 흔적을 스캐닝해서
개념적 공간 설치를 시도

사루비아의 피부

공간설치, 21x29.7cmX2, 2016



사루비아의 피부조각V

Scanography 피그먼트 인화, 21x29.7cmX6, 2016



사루비아의 피부조각V _ Scanography 피그먼트 인화 _ 공간설치_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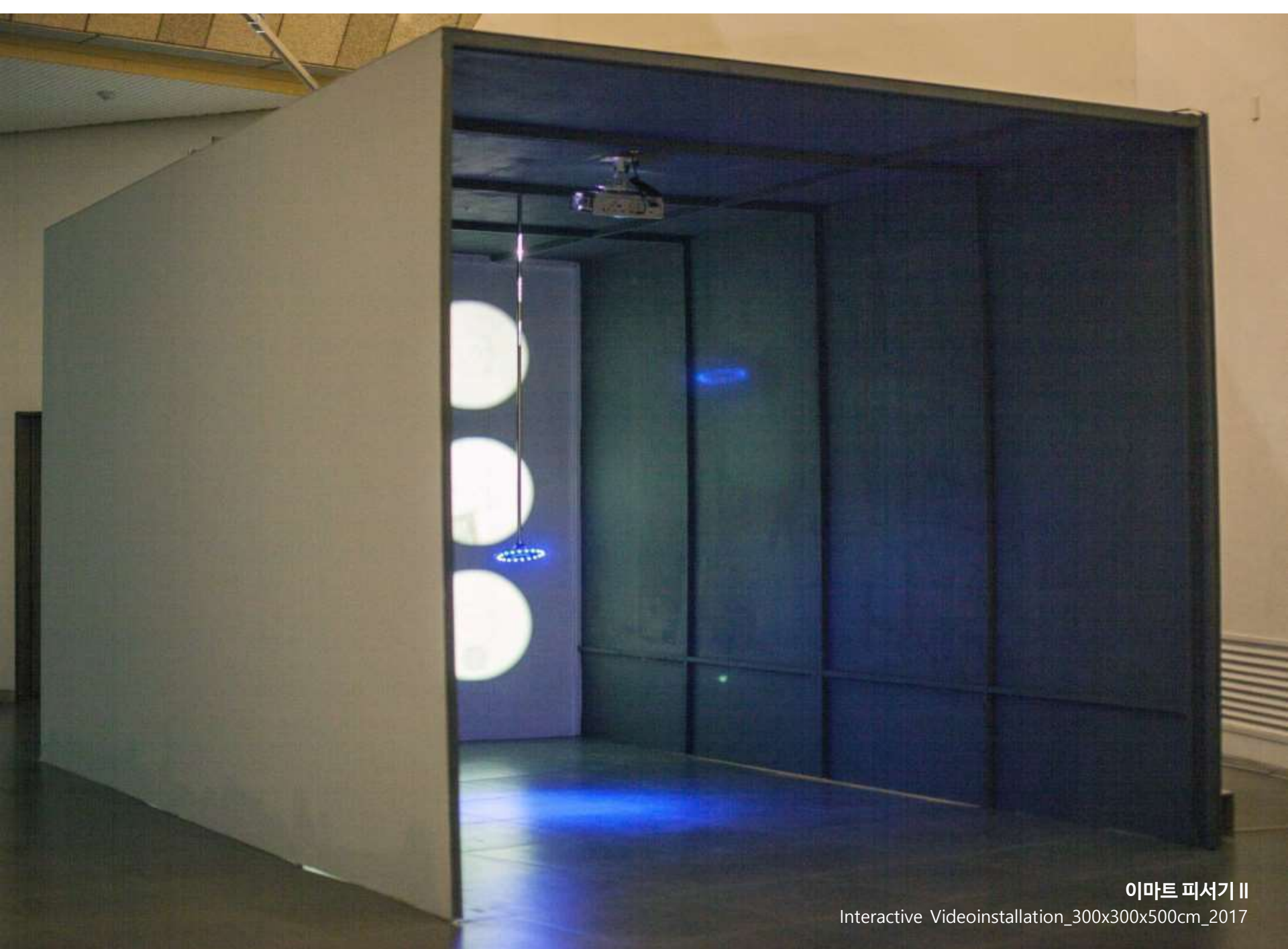
사루비아의 피부I, II_공간 설치, 스케노그래피 피그먼트인화_가변크기_2016



'Monumental XXX Large'_ 동상위에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 on the statue _ 150x80cm_ 2017 'Monumental XXX Large'라는 제목의이 프로젝트는 내가 사는 대구경북지역의 디스토피아적 현재성, 트라우마를 담고자 한 것이다. 'XXX Large'는 미국의 영아의류사이즈의 오버사이즈를 나타낸 치수로서 'XXL'성인사이즈와 아이러니하게 중첩되는 은유를 암시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19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나는 국민학교시절, 등교하자마자 매일 아침에 국민교육현장과 애국가4절을 외워서 받아쓰기를 제출해야 했다. 강제된 학습효과 덕택으로 나는 어릴 적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고유명사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경북지역에 흩어져 분포되어있는 박정희 동상들, 구미 초등학교 (1991), 포항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2009),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광장(2011.8),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 인근(2011.11)등, '박정희' 관련 사업에 5년간 세금 1270억원을 쏟아 부은 곳이 경북권이며 박정희 우상화사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지 2017.10.11.현재 456일째이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이후 꿈쩍없이 강행되고 있는 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국제정치 의 이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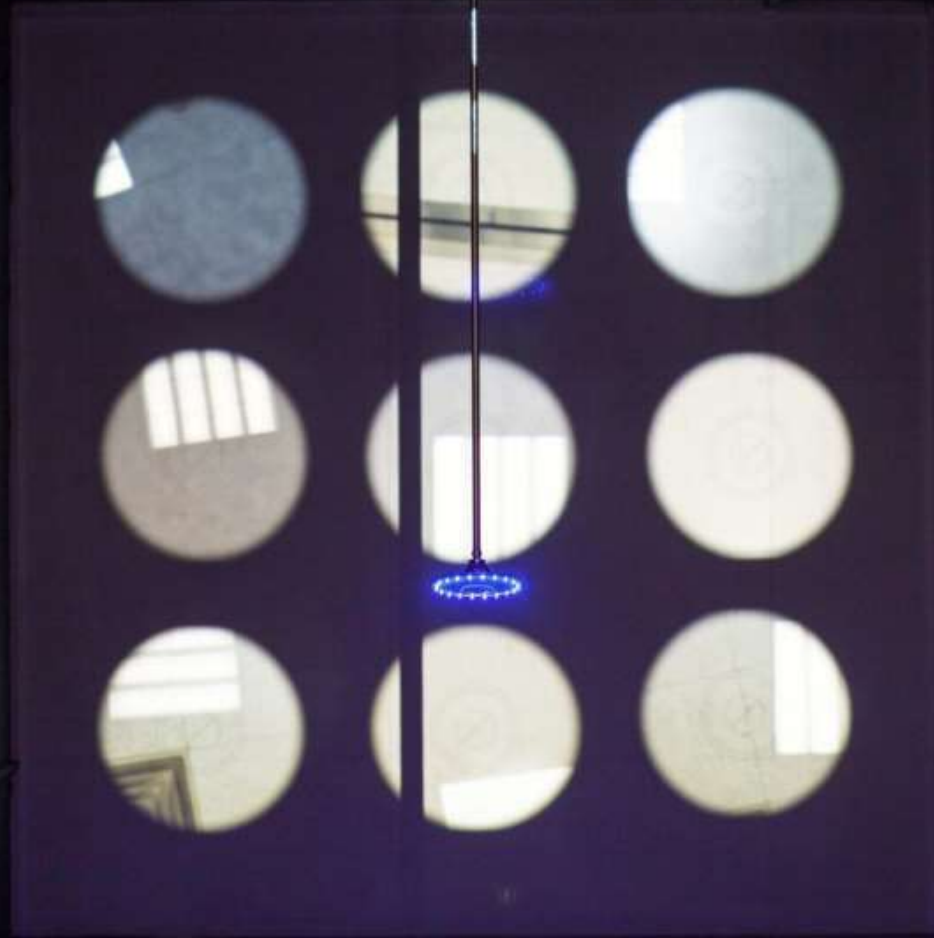
'Monumental XXX Large'_Projection Mapping on the statue _ 150x80cm_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Kp3sa1HmThA&feature=youtu.be>



이마트 피서기 II

Interactive Videoinstallation_300x300x500cm_2017

뉴타운, 신도시가 늘 때마다 똑 같은 풍경이 도로를 따라 지루하게 증식하는데, 곳곳마다 생활권 한 단위가 생성되고 그 구성요소 중 하나가 이마트이다. 이마트에서 운영되는 실내놀이터는 어린이의 피서지로서 가능하다. 이마트의 천장에 설치된 조명, 환기, 방송, 방범장치는 온도, 습도, 조도를 소비자의 쾌적한 몸의 리듬에 최적화하고 재벌기업의 유통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무의식에 개입한다. 이마트에서 소비자의 피부자아는 나날히 이마트 사운드 스케이프(음악, 방송)에 최적화되어가고 고유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빼앗기고 자본의 리듬과 속도에 길들여져 간다. 천정에 숨겨진 공간이나 표면 아래 숨기고 있는 맥락들을 밝혀내서 피상성의 인터페이스 뒷면을 탐구하고 미디어의 본질적 실체를 발굴하기 위해 천착하고자 한다. 이 비가시적인 것들을 다시 감각 가능한 실체로 드러내 보여줌에 있어 관람객의 신체와 움직임은 일상성속에 가려진 시스템 뒤의 베일을 벗기는 매개체가 되고, 이러한 신체적 개입에 의해 작품은 완성된다. *스피커사워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원하는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이마트 피서기 II

<https://www.youtube.com/watch?v=mxq0A7H5W3A>



NO_WHERE	<아무데도>
NO_WHERE	<어디에나>
NOW_HERE	<지금 여기>
U_-----	<없다.>
TO_PIA_--	<더 이상>
YOU_HERE	<당신은 여기>
ARE_HERE	<여기에 있다.>

U-TOPIA_Here you are

LED Panel , 600x105cm , clip-loop, 2018

<https://www.facebook.com/miryeon.kim.5/videos/10205347377559410/?t=0>

시간의 피부

정치와 일상, 예술의 장에서 소외되는 주권자들과 주체들의 비애는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기간에서,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 미술관에서, 아트 페어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 어느 집회, 고택 장롱에서 쌓여간다.
그러한 현장에서 버려지는 인쇄물을 쌓아 올리고 붙여서
갈아내어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만들고 설치하였다.



‘시간의 피부’ 연작

mixed Media _ variable Size _ 2018~2021



검열의 피부
6.7x6.7x3.5cm
스티커더미 사포로 갈아냄
2018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I
41.5x29.4x1cm
리플렛더미를 그래인딩
2018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I
41.5x29.4
원본 리플렛



'DMZ의 피부' 30x21x2cm_혼합재료_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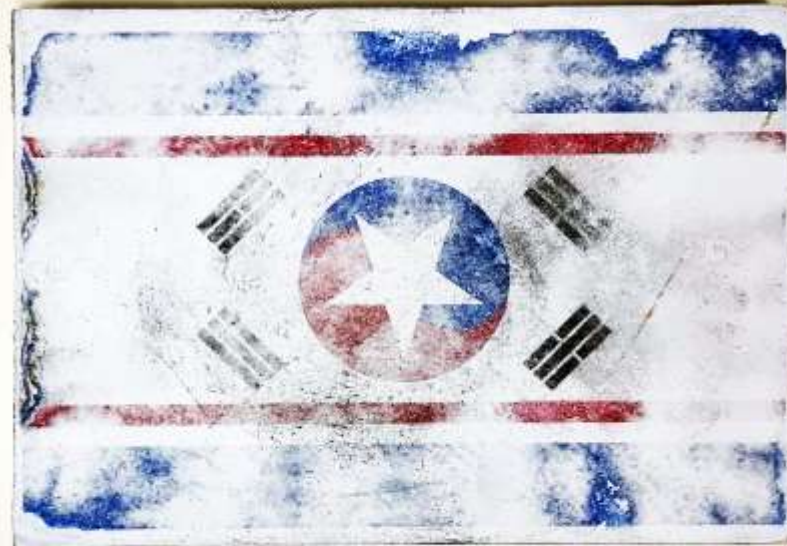


'이것은 검열이 아니다. II' 30x21x2cm_혼합재료_2022



'피부의 정치 I, II, III'

74x52x3cm_ 혼합재료_ 2022



'수보국애1'(좌:앞면, 우:뒷면)

29.7x21x3cm_혼합재료_2022



보죽 씨김앞내1



42x29.7x3cm_ 혼합재료_ 2022



오역(mistranslation)의 피부





몸-시간의 피부

몸에 생긴 악성 종양을 치료하면서
비루소나 몸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나의 몸은 혹사당했겠지.

누구나의 사적일 수 있는 질병 서사가
바이러스로 인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기묘한 타이밍에 나는 몸이 숨쉬는 곳,
몸이 쉬는 영토와 정신에 대해
영 때리며 바라본다.
모든 걸 멈추고 오목이
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층, 온도, 먹은 음식과
약물 먹은 시간을 기록하며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사건 한 장으로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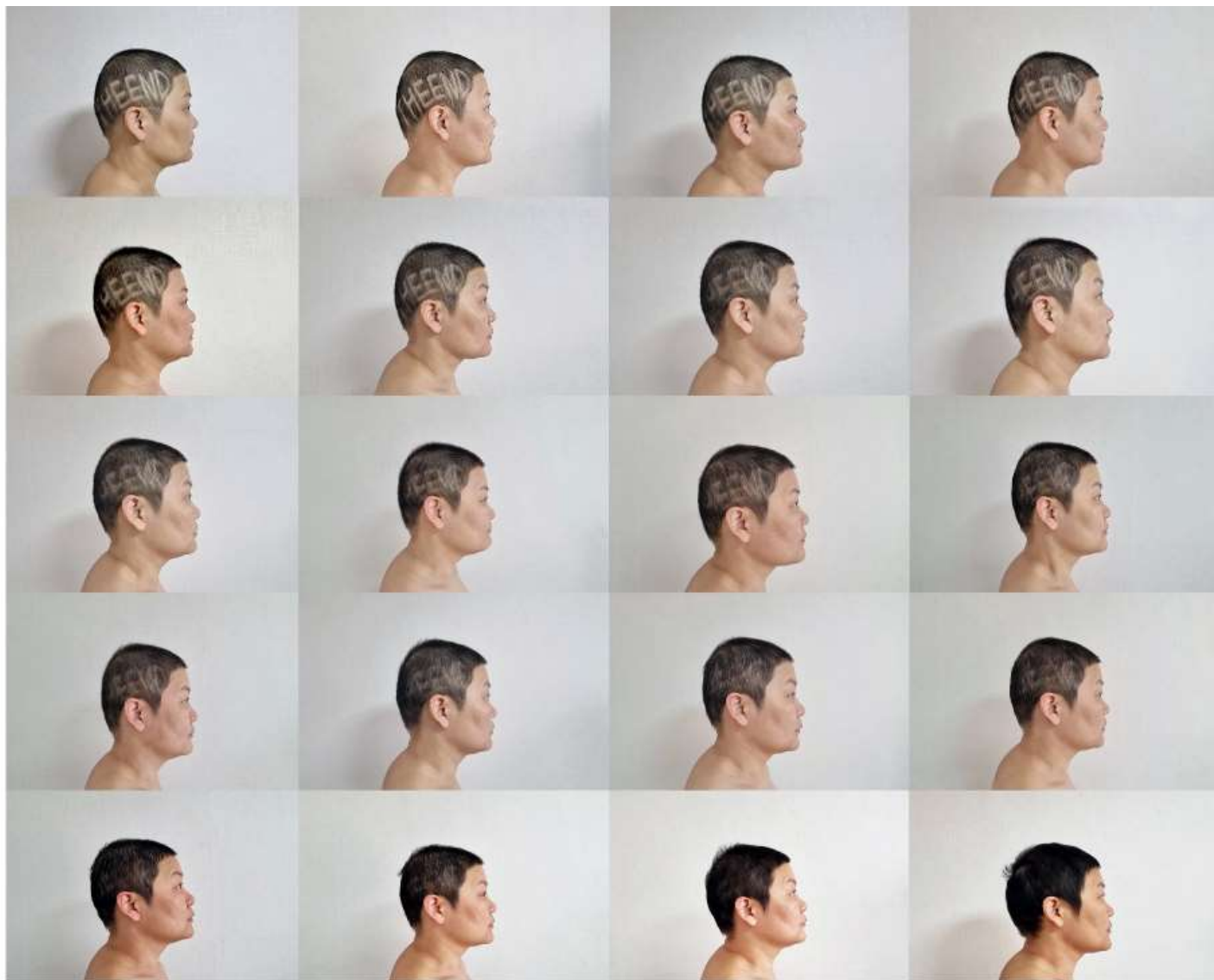
이렇게 무연과 평면 속에
감제된 몸 살피기의
시간이 쌓여 모브제가 되었다.
조각의 최대 높이 만큼 쌓아 올린
시간의 오브제를 사포로 갈아내고,
사진을 잘게 잘라 붙인
영상 골라움을 제작하면서
몸이 어떻게 여러 감각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실존할지 생각해 본다.

나, 너, 우리, 다른 이의 몸-시간의 표본은 어떤
한 질감으로 드러날지,
어떤 기억의 피부를 가지게 될까

'The skin of time- layered time'
42x29.7x50cm
Photo paper, mixed media
2022



'The skin of Time-GoBack' _ 70x48cm _ Pigment Print on Ricepaper _ 2022



'The END'
80x64cm
Everyday Photo
Pigment print on Rice paper
2022



[sliced skin single channel video loop variable size 2002 - YouTube](#)

Random Grid Random City

문화비축기지 큐레이터 최윤정

일정한 사건들의 연쇄적 연결이 아니라,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작가의 작업들은 마치 하나의 변증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로서 실연하는 '몸'과 관찰하는 '기록'과 기억을 발굴하는 '채집'이라는 실천적 행위가 역사와 장소에 내재한 모순에 다가선다, 그 행위는 과거와 현재를 직조한 망 속에서 비판적 관점을 생성하는 동시에 통찰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제에서 출발한 전시, 〈랜덤 그리드, 랜덤 대구〉에 쓰여진 서사들, 그 너머의 서사들은 무엇을 향하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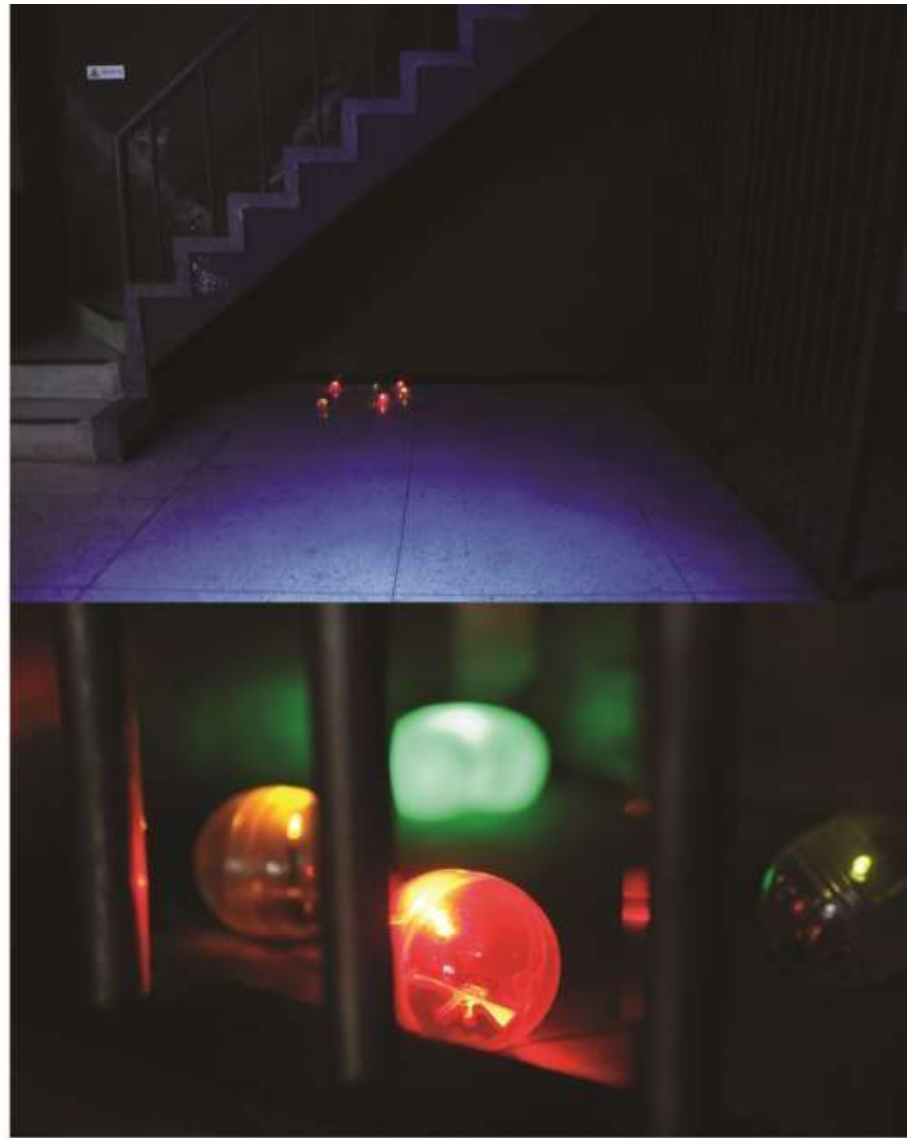
Random City_ 그리기와 지우기

Light foto-pannel 42x59.4cmx3, Viedo on Walker _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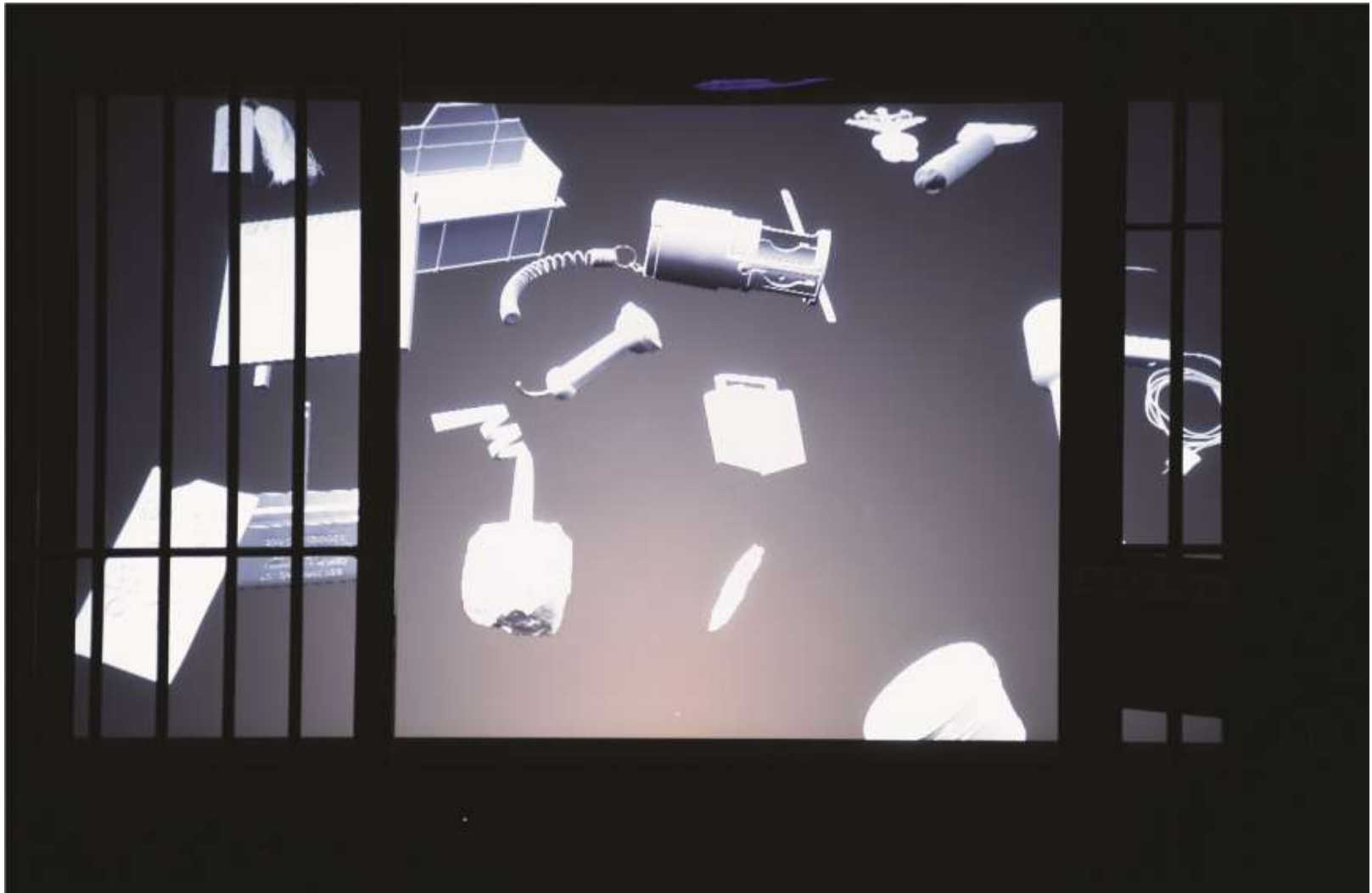




사물 금고 II



Mixed Media _ Variable size _ 2018



['사물 금고1' 단채널영상 반복재생 2019, 'The safe of things 1' Single channel video loop 2019 - YouTube](#)

사물 금고 1

Single channel video _ 1m53s _ Variable size _ 2019

대구 메가폰 슈프레히콜

Daegu Megafon Sprechchor

이상춘은 1910년 대구에서 태어나 1937년에 요절한 천재예술가로서 정치적 아방가르디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다다이스트, 러시아 구성주의, 카프미술운동, 카프(KAPF)예술운동, 연극운동, 행동주의예술운동을 하였다. 이상춘이 1932년 신고송과 함께 만들었던 극단 <메가폰>의 슈프레히콜(Sprechchor)을 연구하고 복원한다. 이상춘과 신고송은 1932년 7월 <연극운동>을 발간하였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곧 일본에서도 실연된 집회, 시위 형식의 전위 연극 슈프레히콜 (Sprechchor:독일어 'Sprechen / 말하다'와 'Chor / 합창'의 합성어)을 특집으로 다루며, 시 낭송과 코러스가 어우러진 이 새로운 거리공연을 '선동, 선전' 프로연극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대구메가폰 슈프레히콜'은 신고송작의 <철쇄는 끊어졌다>를 복원하는 한편 또한 창작물 <지금, 여기 타오르는 불>을 초연한다.



Daegu Megafon Sprechchor 3 Channel Video , Sound installation _ Variable size _ 2019

<https://www.localpost10.com/blank-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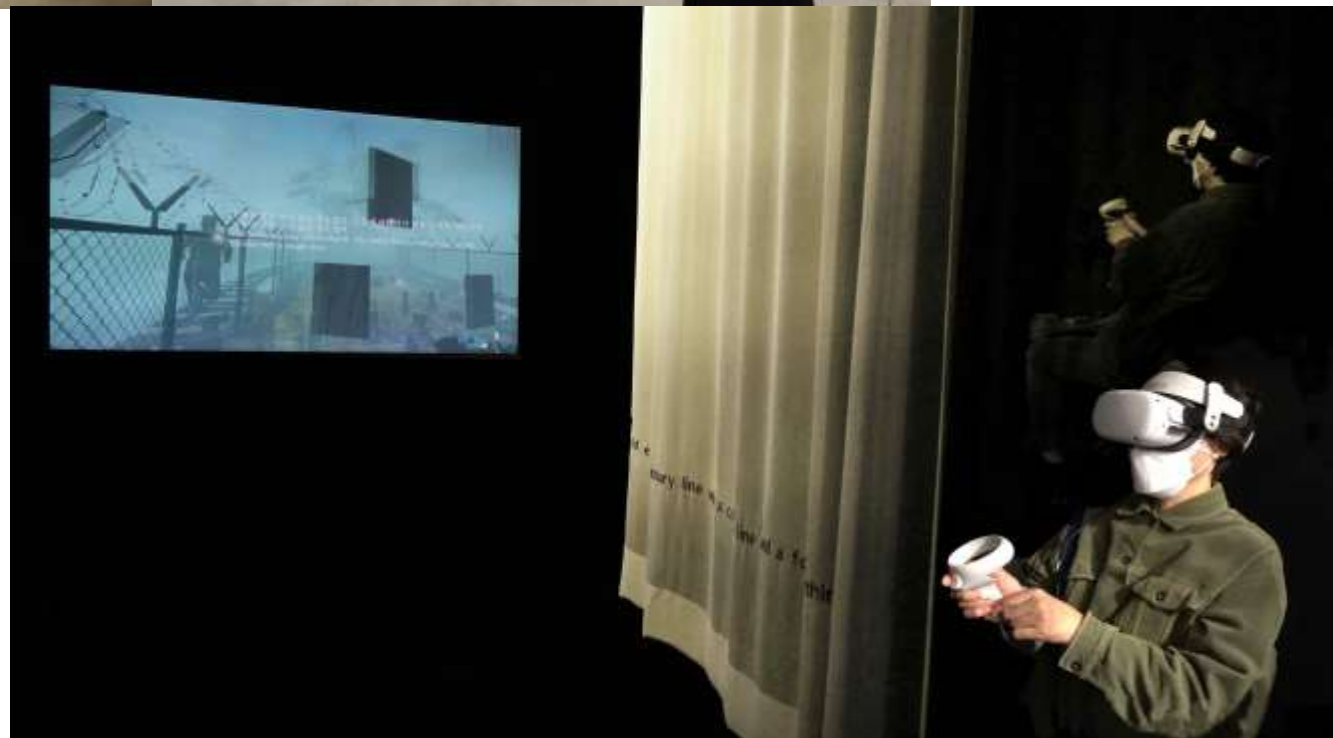
안개의 그림자 I, II

분단의 기억이 정치적, 심리적인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작용하는지를 내 가족의 서사를 재구성함으로 보여준다. 아버지의 월북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불완전한 주관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정치적 무의식(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과 심리적 무의식(원망, 소망)을 VR 영상과 설치작업으로 재구성한다. 관람객은 타인의 목소리와 가상영상체험을 통해 누구나의 일상에도 관계하는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

가장 보통의 날들 most ordinary days



'가장 보통의 날들', 6분16초, 3채널 영상,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FzZPJ7OkvCA>



안개의 그림자

VR 3D animation, 커튼, 가변크기, 2022

<https://youtu.be/Jk4X5o547V8>



merci 점멸네온, 130x22x10cm, 2023



still here 황마위에 바느질, 지름 90cm, 사운드 설치, 2023





Grandmother's period

단체널 영상, loop, 4k, 2023



서울 문화비축기지 전시전경 _ 2022



서울 문화비축기지 전시전경 _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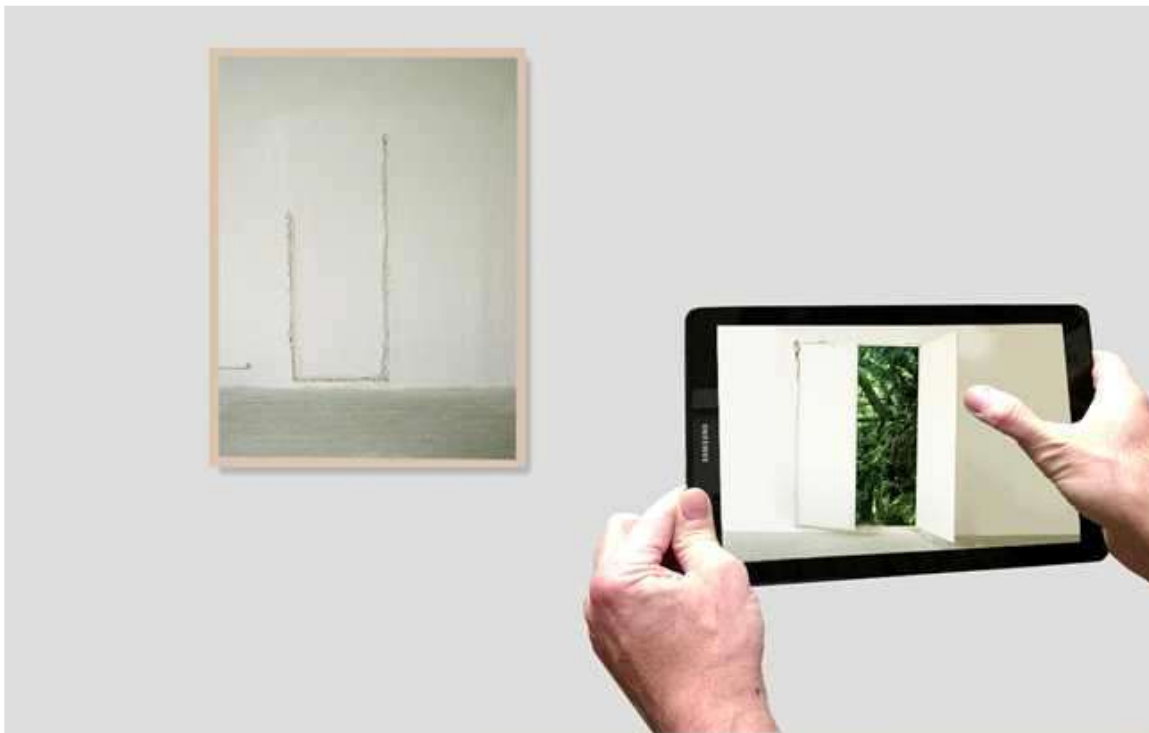




동인아파트 2동 38호. 흥두리 여사. 91세.

DW1-5 **이사의 기술 Skill of house-moving**

2022 | 다큐 | 24min



After Pandemic
AR video, Tablet Pad
Variable Size
2020

[hiddenproject.de/fileadmin/user_upload/Orte/Korea/After Pandemic_pandemic_spring06_kimiry.mp4?fbclid=IwAR1jgajO7C7OVuCM5SAvZQlolAJAbliLnB5VwcBvP43TFADARyXHNOb7q9A](https://hiddenproject.de/fileadmin/user_upload/Orte/Korea/After_Pandemic_pandemic_spring06_kimiry.mp4?fbclid=IwAR1jgajO7C7OVuCM5SAvZQlolAJAbliLnB5VwcBvP43TFADARyXHNOb7q9A)





다른 몸, 다른 언어: 도시를 허하라(수화) _사진폴라쥬_21cmx29.7cmx13개_2021



도시를 허하라_수화_김미련_김정희_김유석_2021



도시를 허하라_수화_김미련_김정희_김유석_2021

도시를 허하라_2채널 영상_52.30cmx92.98cmx모니터2대_김미련(김정희,김유석)_2021

<https://www.youtube.com/watch?v=sRBpZlk1eyE>

서로 '다른' 몸을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의 '몸말'과 '몸짓', '몸그림'을 '빛(영상)'으로 엮는다. 몸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상상하는 도시는 그들의 '몸'이 '언어'가 되고 '말'이 되고 '화폭'이 되어 펼쳐진다. 장애인에게 일상성과 접근성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의 문턱 높은 건물과 도시가 가지는 폐쇄성과 차별성은 다양한 미디어 기법으로 '몸'에 다시 입혀진다. 전유되고 전용된 이미지와 텍스트, 형상을 통해 '도시'는 그들의 '몸'에서 '재탄환'된다.

김미련 KIM MIRYEON

1969 한국/안동 출생
www.kimiry.net
edukimi@daum.net

학력

2013 경북대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수료
2008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미대 학사, 석사과정졸업, A.R.Penck 마이스터술러 사사
1992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졸업

개인전 (선택)

2023 '안개의 그림자 II', 봉산문화회관 4전시실 기획초대, 대구
2022 '시간의 피부', 아트 컨티뉴 갤러리, 서울
2019 'Return',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14 'Moving scape', 웃는 얼굴 아트센터 특별개인전, 달서문화재단, 대구
2014 '기억의 미래',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12 '12회 하정웅청년미술상' 광주시립미술관
2011 'The spatial Plants' 기획공모, 주)독일한국문화원 코리아갤러리-기획공모전, 베를린, 독일
2009 '2009 올해의 청년작가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8 'before-after'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공모전, 서울
2007 'Moving Image', 야누어 갤러리초대전, 보쿰, 독일
2006 Galerie Kunstturm, 라팅엔, 독일
2006 'Remappng 2', Forum Wassertrum, 메어부쉬, 독일

Prize

2022 Mannheim Arts and Film Festival, VR부문 최우수상
2016 사루비아 다방 'SO.S' 프로그램 작가선정
2016 경남매세나 지원작가
2012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2009 오늘의 청년작가상 대구 문화예술회관
2008 서울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작가선정
2003 독일 러벌즈 변호사협회 작가후원상 1등상

Public Collection

대구미술관, 독일 한국문화원, 국립 과천현대미술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팔레스트 뮤지엄,
대구문화예술회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인 근현대사미술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헨만아트갤러리, 부산 현대백화점 등
다수의 개인소장

그룹전 (선택)

2023 '나와 나의 ()' undress me my little BUDDA' 국제교류전,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Signals and Body', 솔거미술관 기획공모전, 경주
'Imagine', Art PURL.U개관전, 울산
'봄' 아트스페이스 필, 대구
'Spehre Salon', El Bunker, 멕시코시티, 멕시코
2022 '기억을 걷는 시간들', 문화비축기지 T5 기획, 서울
'nomansland.academy 1,2.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21 '양가성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라호만 아트갤러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8월호/점멸하는 집', 인사미술공간, 서울
2020 '새로운 공동체', 릴레이 드로잉展, 대구미술관
2019 'Die grosse 2019',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대구 아트레전드 이상춘'展,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Way to Simplicity 15:Yugen, Schloss Mitsuko 미술관, Todendorf, 독일
'도입시더 Do it Theater 2019'-디지털지신밟기,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Cube&Boxes'展, Raum für Raum, 뒤셀도르프, 독일
2018 사루비아 20주년 기념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7 '우리 우상', 아트스페이스 담다,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프로그램, 서울
'Daegu In tact', 대구 문화예술회관
2016 'KUNSTPOSTSTELLE', 갤러리 계동, 베를린, 독일
2015 'Die Grosse 2015', 쿤스트팔라스트뮤지엄, 뒤셀도르프, 독일
2014 '내용증명' 다원예술프로젝트, 이포, 아르코후원, 서울
'무빙트리엔날레', 부산일대 '저항예술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50개 인터네셔널 공공미술
깃발프로젝트Flagge zeigen- '50 Kunenstler Fahnen', 라데폰발트 (Radevonnwald) 독일
'육상의 정치_지역연계프로젝트 "육상민국" 문래동 일대 육상/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 유진 유토픽 국제 아트 비디오 페스티벌, 노르망디, 프랑스
2013 Daegu Media Art ZKM
미디어특별기획전-'Better Than Universe',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Videoabend', 갤러리 야누어, 보쿰, 독일
2012 'Communication in the city', 대구박물관 'LANGUAGE IS THE HOUSE WE LIVE IN'-
Kunstfilmtag
2012Malkasten, 뒤셀도르프, 독일 "D-artist", 대구미술관, 대구

프로젝트 및 기획

2012-현재 아티스트컬렉티브 로컬포스트 대표
2022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상노리터' 달성군 청소년센터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대구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공동기획 및 작품참여, 카바리움 극장, 대구
2021 'Hi, A new Home', 수창청춘맨션 전시 기획, 대구
2019 '동인동인 東仁同人'-linked' 프로젝트 기획, 전시, 공연, 아파트커뮤니티축제, 동인아파트, 대구
2019 '포스트공동체 ing/1' 전시기획, 수창청춘맨션, 대구

Lecture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회화과 겸임교수, 대구한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초빙교수역임
대구예술대, 계명문화대, 덕성여대 외래교수 역임
현 경북대 강사